

너부터

89

2021 하반기

4 30주년 특집	
4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선언문 :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6 30주년 기념식 스케치 : 온라인으로 만난 30년, 그리고 그 이후	
11 30주년 돌아보기1 : 생존자말하기 1회 기획단 인터뷰	
19 30주년 돌아보기2 : 前 상근활동가들의 현재	
28 똘다!상담소	
30 성문화읽기	
30 군대 내 성폭력 전면 대응 시스템, 이제는 '실행' 되어야 한다	
36 법정에 선 성폭력	
39 상담통계	
39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	
44 열림터 다이어리	
44 자립에 대한 환상과 실제	
49 생존자의 목소리	
49 꼬맹이와 돌멩이	
50 나의 요즘	
58 시골시골 상담소	
58 내가 화요일마다 상담소로 출근하는 이유	
62 건물 관리의 비애	
66 아낌없이 주는 나무	
72 훈훈한 기부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비전선언문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말하기 시작하자 균열이 일어났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족, 학교, 일터, 길거리, 온라인 등 모든 공간에서, 아는 관계와 모르는 관계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은 흔히 일어났다. '농담'이나 '실수', 심지어 '본능'이나 '역할'로 불려온 것들을 우리는 '강간 문화'라 명명했다. 우리는 예민한 것이 아니라 부당함과 불의에 분노한 것이다.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와 대안을 만들어온 것이다.

침묵을 뚫고 나오는 파열음 같은 말하기를 마주한다. 생존자의 말하기는 문화예술이나 정치이론만큼 힘있는 진실로 세계의 범주를 넓히며 변화를 만들었다. '정상성' 규범에 어긋나는 목소리, 불평등한 성별 권력 구조에 무시됐던 목소리는 존엄한 삶을 여기로 가져왔다. 우리의 안테나는 낯선 표정, 새로운 말, 용인되지 않은 감정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으며 서로 신호를 보내고 받는다.

의미들이 반짝이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공명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어온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보호

할 만한 여성인지' 따져 묻던 가부장적 법과 판례를 바꾸었다.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자를 쉽게 의심하고 비난하는 성폭력 통념을 깨고 '피해자다움'이란 없음을 밝혔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담론을 확산했다.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도, 거대한 권력과 위력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우리는 계보 있는 자신감 위에 서서 길을 잃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은 이윤에 부처지고 권리를 가질 자격에 증명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피해자의 권리로 만들어 온 법·제도적 절차와 기준은 자본이 대거 투입된 '시장'에서 가해자를 지키는 자원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성차별, 소수자 탄압, 약자혐오를 확산하는 몸부림, 이를 부추기는 정치가 사회 곳곳에서 퇴행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경험하기보다 절망과 무력감만을 반복해서 마주한 세대는 고립된 채 각자 생존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권리를 특혜라고 이름 붙이며 박탈하려고 할 때 강고한 연대로 맞서겠다. 말할 자격, 피해자 될 자격을 묻는 위계를 거부하고 '자격 없는' 여성들과 세상을 바꾸겠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모여 분열된 삶을 통합하고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재구성하는 공론장을 열겠다. 다양한 조건과 삶의 불평등을 살피고, 서로 의지하고 돌볼 수 있는 관계, 평등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립되고 지쳐 주저앉는 대신 연결되고 기대어 불안정한 시대를 모험하겠다.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가 풍요롭게 퍼지도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환대하자.

2021. 10. 7 

30주년 기념식 스케치

온라인으로 만난 30년, 그리고 그 이후

낙타_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

2021년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0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념식,
온라인 말하기 총괄 낙타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년도 채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 역사에서 오는 든든함이 있다. 든든한 만큼 30주년 기념식이라는 중차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참 막막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역사에 참여한 멋진 사람들을 볼 생각에 두근거렸다. 30년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은 설레는 기념이자 막중한 실무였기에 2020년부터 비전, 스마트워크, 홍보, 규정TF가 꾸려졌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30주년 기념식TF의 기획 회의가 시작되었다.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을까?” 상상하다 내가 달빛시위 때처럼 그 옛날의 에피소드가 궁금하다고 말하니 오매가 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념식은 30년의 발자취, 함께 연결된 이들의 5분 말하기, 비전선언문 낭독으로 구성했다.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언어로 흐름과 주제를 숙고하여 고심 끝에 섭외 명단이 결정되었다. 기념식 후원 모금을 위해 굿즈의 품목과

구성, 효과적인 리워드 방식을 한참 고민하다 작은 도마를 선정했다. 돌이켜 보니 모든 선택의 과정에는 상근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영상별 담당자를 정하여 속도감 있게 실무를 진행했다. 영상은 연분홍치마의 닝쿨, 이혁상, 변규리, 빼갈 그리고 슬로건<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시각화 작업은 김리원 디자이너가 함께 해주셨다. 어푸어푸 개구리헤엄 치는 우리에게 친절히 구명조끼를 입혀주신 감사한 분들! 특히 연분홍치마와의 대면 미팅에서 영상의 세계를 새롭게 알아갔다. 연분홍치마에서 진행하는 촬영과 편집에는 대본, 자막 등 콘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 아아, 어려운 영상의 세계여. 음향을 영상에 담기 위한 기초지식을 쌓아주신 덕에 래퍼 슬릭 섭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톱툰이 주제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스피커와 소통하고, 좀처럼 오지 않는 원고를 기다리고, 마침 코로나 백신을 맞은 스피커의 안위를 묻는 사이에 내 담당 생활인 2명이 열림터에 입소했다. 술한 번수에 허우적대면서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은 것은 모두



스튜디오 촬영 비하인드

함께한 동료 덕분이었다. 그러니 기념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후원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촬영 당일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각자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예산 절약에 최선을 다했다. 혹시나 촬영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프로방송인들의 활약이 펼쳐졌다. 지리산은 곧고 단단한 자세로 1번 만에 오케이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대본의 프로방송인 변영주 감독님도 2번 만에 촬영을 마치고 여유롭게 스몰토크를 나눴다. 이쯤 되니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래퍼 슬릭의 공연에 비전양갱을 응원봉마냥 흔들어들었다. 촬영 중 울컥하신 은유 작가님은 눈물을 닦으며 씩씩하게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을 외쳤다.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라는 말을 이토록 잘 표현한 순간이 있을까? 이 귀한 컷은 쿠키 영상으로 들어가서 촬영장을 넘어 실시간 채팅창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수어 통역의 경우 스케줄 관계로 별도 촬영을 했다. 한국농인LGBT와 사전회의를 통해 기념식 초반에 수어에 없는 단어를 보완하는 안내 영상을 삽입할 수 있었다. 말의 리듬이 느껴지는 수어 통역을 전해주시는 보석, 진영, 레고 덕분에 모두가 함께하는 기념식을 만들 수 있었다. 자원활동가분들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는데, 기념식 초반부터 사방에 흩어진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자막을 위한 녹취 등 편집에 큰 도움을 주신 홍서현, 박지희, 안은혜, 김민지, 장채원, 박주현, 김하윤 자원활동가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촬영 후 연분홍 치마와 동료들의 피땀눈물로 단기간에 최종피드백, 수어 촬영, 최종편집본 수령, 기념식 당일 송출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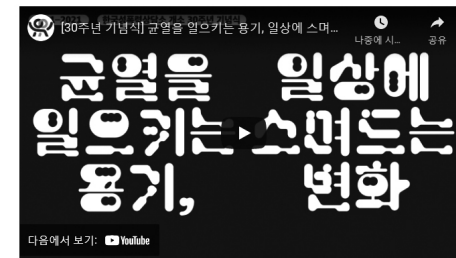
대망의 기념식 당일에는 각자의 편안한 공간에서 시청했다. “정말 보기만 하면 돼요?”라는 동료의 말에 채팅을 부탁한다 했더니 범상치 않은 별칭으

로 등장하여 채팅창을 뒤집어 놓았다. 말하기의 주요 내용을 퀴즈로 내어 「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은 님의 쪽지와 커피 백을 선물로 드렸다. 발자취에서 말하기로 넘어가며 감동받아 후원을 시작했다는 채팅이 속속 올라왔다. 비전선언에서는 “목소리와 자세가 이렇게 강렬한 것이었나.”라는 소감도 있었는데 비전영상 담당 앞이 매우 뿌듯해했다.


기념식은 순조로이 마무리되었고 유튜브에 클립별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10만 원 이상 특별후원자에게는 도마 굿즈를 전달했다. 후원자 중에 열림터를 생각하며 생일선물로 후원금을 모아 30주년에 후원해주신 분이 계셨다. 적은 금액이라며 민망해하셨지만, 분명 감경후원하는 가해자의 목소리와 대비되는 뚜렷한 목소리였다. 언젠가 지리산이 들려준 “이 일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떼떽하다”라는 말이 생각났다. 30주년을 맞아 언제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고 감사드렸어야 마땅하나 이렇게나마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반성특약 #성평등 #여성인권 #성폭력 #30주년



30주년 모금함

단단한 연결을 느낄 수 있어 기뻐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상담소는 혼란스러움을 돌파하며 대중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성폭력이라는 문제의식에 언제나 관심을 보내준 여러분 없이는 오지 못했을 몇몇한 30년의 역사, 언제나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30년만큼 앞으로의 30년도 멋지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30주년 말하기 주요 발언



30주년 말하기 영상

“저는 말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만나서 행복하다는 말도 나누고 싶습니다.”

— 친족 성폭력 생존자, 공폐단단 활동가 푸른나비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 말할 수 없는 상처는 없다.”

— 은유 작가

“사회는 반드시 변하고,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며 인권존중의 법·제도문화를 만드는 멋진 전을 해갑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지리산

“별거 아닌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우리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있다.”

— 변영주 감독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자체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윤리의식이 아니라 ‘가해자 남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이며 남성들 사이에서 ‘흉’을 깨는 한 명이 되어주세요.”

— 박정훈 기자

“변화는 쉽지 않은 문제해결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유랑

30주년 돌아보기 1

생존자말하기대회 1회 기획단 인터뷰

인터뷰이_해갈, 수수
인터뷰 진행/정리_경진, 닷별, 서현

’

제1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로부터 벌써 18년.
자원활동가와 상담소 활동가로 기획에 참여한 두 분과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닷별이
말하기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수수 저는 전라남도 구례에서 노래 부르는 옥수수로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돌봄 교실에 가서 노래 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행동이라는 시민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해갈 저는 도봉구의 여성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성 취업, 사회 문화 교육 등을 하는 곳이에요.

닷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먼저 생존자말하기대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해갈님은 당시 상담소 활동가로서 느꼈던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해갈 상담소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얘기 해오고 있잖아요. 당시 성문화운동팀에서 기획하고 참여를 제안했어요. 제가 있었던 여성주의상담팀에서도 개인적인 상담과 지지를 넘어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했죠.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했지만,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등이 일어나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영페미 문화도 일어났고요. 우리도 외국처럼 스피크아웃(speakout) 행사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생존자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기획단을 같이 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었어요.



1회 말하기대회 본행사

남아있는 당시 자료들을 살펴보니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분들을 초대할지, 어느 정도로 행사 참여를 열어둘지 등의 얘기가 담겨 있던데요. 그때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이 궁금합니다.

수수 기획단 안에 생존자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각자 자신의 성폭력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안의 여러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그를 정형화하고 위계를 만드는 문화에 대항하고자 했어요. 당시 막 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성폭력 경험을 전형적으로 서사화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죠. 하지만 피해 경험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미술과 퍼포먼스, 시, 연극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죠.

닷별 해갈님의 말씀을 들으니 2018년 생존자말하기대회가 떠오릅니다. 한 생존자분이 북을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북 치는 세기를 조절하기도 하면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셨거든요.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체감하시나요?

해갈 당시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많이 고민했어요. 피해 사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기, 사진촬영 금지 같은 조항이 담긴 서약서를 받았죠. 말하기가 확산되면서 듣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겼어요. 여전히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의 행동에만 집중하는 언론이나 미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듣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요. 최근에 지인과 만나 20년 전보다도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생존자말하기대회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성폭력 사건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 조심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성폭력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판사가 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더라고요. 백래시가 심한 상황이라 걱정이 되지만,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이겠거니 합니다. 기대해야겠죠.

닷별 예전에는 전화상담에서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를 주로 물어보셨다면 이제는 주변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나 대응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수수 얼마 전에 중학생분들과 '기후위기와 페미니즘'이라는 수업을 했어요. 근처 학교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을 주제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공분하고 공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0대 여성들이나 사회적 자원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통의 여성들도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무엇을 폭력이라 정의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은 젠더권력에 기반한 감각은 체감상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백래시가 심해졌지만, 동시에 백래시의 민감도도 높아진 것 같고요.

SNS 등 말하기의 장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수 장애여성들과 함께 노래/퍼포먼스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성폭력 경험의 말하기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돼요. 말할 수 있는 매체와 시간의 폭은 넓어졌는데, 여전히 특정한 계층이나 조건에 있는 분들에게는 폭력 경험을 얘기하기까지 제도적, 문화적 장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매체의 존재조차 잘 모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양한 매체의 등장이

곧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고요. 말하기의 방법과 시공간을 선택하는 과정을 잘 고민하지 않으면 배제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해갈 온라인 공간에서의 말하기가 많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는 요구들이 심각하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온라인은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상담소나 여성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에서 개인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공격도 많아졌는데, 그건 아직 전형적인 피해자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폭력 통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습시다.

다시 생존자말하기대회를 연다면

어떤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수수 저는 몸을 써보고 싶어요. 스우파*의 영향인가(웃음). 공동의 몸짓을 만들거나 내 몸을 살피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한 생존자분께서 요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는 왜 요가를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나의 성폭력 경험과 비슷한 사건들을 접하면 그 경험들이 계속 올라와요. 나를 갇아먹거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감정들을 조율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몸 작업이 좋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몸짓들을 나누고 보여줘도 좋을 것 같네요.

해갈 그 자리에 참여하진 못하더라도 플래시몹이나 공동행동으로 지지와

**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엠넷에서 방영한 댄스 크루 서바이벌 프로그램.



2019 한국여성대회 원빌리언 라이징

응원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정말 외로워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인식 많이 달라지고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시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걸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수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폭력이나 차별의 경험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구례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 능력치를 높여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 주변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네

요. 폭력의 목격자나 지지자, 어쩌면 연루자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또 어떻게 그에 연대하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해갈 처음에 인터뷰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어요. 기획단 활동을 더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부담이 됐지만 인터뷰에 응하게 된 건 상담소가 그만큼 체계 의미있는 곳 이어서예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 된 소중한 곳이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수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어요. 말하기 대회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데, 수수님 이름이 옥수수의 줄인 말이라는 걸 얘기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담소에 기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활동가들이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달별 정보는 많은데 어떤 것들이 진짜 유의미한 정보인지 취사선택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얇은 정보마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과정보의 시대에 상담소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수 어떤 폭력이든 서로 연결돼있고 증폭시키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요. '육식의 성정치'라는 책을 보면 공장식 축산, 젓소 착취와 재생산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폭력 경험을 말하고, 서로 연결돼있는 차별과 폭력들에 대해 사유하고 상상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나누고 싶어요. 말하기대회같은 곳에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연결됨으로써 생존자나 주변 지지자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회복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갈 상담소가 올해 30주년이라고 들었어요.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운동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인의 힘과 목소리가 커졌지만 여성단체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활동가들도 힘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터뷰가 나눠준 연결과 연대의 마음, 힘이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인상 깊은 인터뷰였습니다. 사려깊고 재치있는 두분의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나눔터 독자 여러분께도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30주년 돌아보기 2

前 상근활동가들의 현재

인터뷰이_유영, 키라, 지선
인터뷰 진행/정리_란, 박지희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를 쓰며 내년도에 발간될 개인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유영,
동물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키라,
학교에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있는 지선.
모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활동가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 삶을 즐기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 세 분을 만나 나누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선 저는 고등학교에 보건 교사로 있어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교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는 덜하지만, 워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주변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선별진료소가 학교 내에 차려지고 서류들도 다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만 비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과 별도로 여성 문제는 계속 마음에 두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성폭력 같은 문제들이 생기다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여성위원회 “흐름”을 알게 되었어요. 흘러가는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흐름을 읽고 동참하자는 의미예요. 이 활동을 올해 초에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박소현 감독님의 《에프터 미투》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키라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 살고 있고요. 정읍에서 “기린 동물병원”이라는 작은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원장입니다. (웃음) 개나 고양이들이 많이 와요. 당뇨나 심장병, 치매같이 노견들에게 있는 질병들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앵무새와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녹색연합에서 저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투명창은 사람이 더 시원하고 밝게 보려고 만드는 건데, 새들은 투명창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거의 즉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창문에 사람의 시야를 별로 가리지 않는 반투명한 스티커를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면, 사람이 보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조류들은 스티커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창을 피해서 날아가요.

유영 저는 결혼하고 파주 가서 살다가 서울에 다시 돌아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작년에 문학동네 출판사를 통해서 신인상을 받고 시인으로 등단하게 돼서 지금은 글을 쓰면서 첫 번째로 나올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분 다 다른 곳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유영 저는 대학교 때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그때에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이 페미니스트 운동인 것 같았어요. 마침 상담소에서 활동가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죠.

키라 저도 비슷한데요. 대학 다닐 때 웬지 모르게 여성학 수업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고, 여학생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활동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졸업하고 여성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어 학원에 강사로 취업해서 등록금을 열심히 벌면서 여성학과에 갔습니다. 여성학과에 가서 썼던 논문이 성폭력과 관련되기도 했고, 상담소에서 자원활동도 했다보니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선 저는 간호대를 나왔는데, 간호대 학생회를 하면서 알게 된 선배가 총여학생회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알게 되었어요. 간호대에서는 4학년이 되면 지역사회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제가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상담소로 자원활동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상담소 부설 열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너무 좋고, NGO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보통 간호사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여성단체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졸업하고 나서 병원에서 몇 개월 일하다가 결심을 하고, 병원을 퇴직하고 상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반 토막이었지만요. (웃음)

그리고 당시에 뽑는 부서가 재정부였어요. 그래서 간호학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처음 보는 분야로 입사 지원했었어요. 들어가서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죠. 저는 학생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건너 들었던 거고, 여성학과에 갈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상담소 활동은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뼈를 문으리라!”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키라 저는 “자기방어훈련”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사업도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실전처럼 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행동하라”라는 구호도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 몸을 쓰는 걸 안 해봤었거든요. 여성학과 논문을 자기방어와 관련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처음 알았던 것은 상담소였어요. 그리고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의 담당자가 저였었는데, 기자회견 당시에 되게 답답하고 슬펐던 기억이 오래 남고, 간간히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볼 때도 생각이 많이 나요.

상담소에서 얻었던 좋은 경험에서 지금도 제가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공간인데도요. 병원에 있으면 10대 여성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담소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유영 저는 여성주의상담팀에만 있었어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활동가를 그만두고 나서 혼자서 글을 쓸 때 의식적으로 지원했던 기억들

을 많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경험들이 내 경험이나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서요. 사실 상담소에서 활동했던 기억들과 동료들과의 기억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좋은 게 많지만, 상담 장면 같은 기억들은 이제 많이 까먹었어요. 다만, 상담일지 양식이 바뀐다고 했을 때 약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바뀌야 된다고 해서 힘들 때 그만뒀던 (웃음) 생각이 나네요.

상담소에서 활동하다 지금의 영역으로 인생의 노선을 바꾸셨는데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유영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무조건 3년 이상은 활동을 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3년 되기 전에 그만뒀어서 약간 상담소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부채감이 있기도 해요. 젊은 활동가들이 성장을 하고 익숙해지면 자양분을 얻고 떠나버리는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상담소 안팎에서 듣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었죠.

지선 저는 상담소에 애정도 많았고, 무언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하고 의견 차이가 많았어요. 상담소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애를 낳고 또 남편은 창원에 먼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서울에 염증을 조금씩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상담소 활동을 접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남편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활동가들하고 잘 정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내려온 느낌이 있

었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도 조금 있었고, 미안함과 함께 양금을 안고, 창원에서 여성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부랴부랴 내려가게 되는 현실이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좀 차리고 창원에서 여성활동이나 환경활동을 해 보고 싶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꼭 여성활동만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집에만 있으라는 요구들을 계속 받으면서 1-2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니까 학교도 싫어했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분노의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공감의 한숨)

키라 상담소에서도 지선이 가족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되게 안타까워했었죠.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지선의 선택으로 더 잘 살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지선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답을 하자면, 상담을 하면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쌓였는데, 여성주의상담팀이란 안 맞는 것 같아서 성문화운동팀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성문화운동팀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서 푼 것도 있지만, 성문화운동팀이라고 상담을 안 하나요. 모든 활동가들이 상담 몇 개씩은 책임지는 시스템이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부담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잘 버텨서 상담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활동가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미안해요. 이런 거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못했던 것 같아요.



2008 여가부폐지반대 기자회견

좀 솔직하게는 이 급여로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죠. 그때가 이명박 정부였는데 상담소 재정이 되게 어려웠고, 활동가의 급여를 인상하는 안건이 회의에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근활동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죠. 그때는 인정하지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에도 문득 활동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활동가 모먼트'가 있을까요?

키라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이 상담소에서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보였던 것처럼, 지금은 동물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불편

한 부분들이 저한테 자꾸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활동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 혼자 저감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정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지, 우선 녹색연합에 연락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웃음) 그래서 최근에 녹색연합에서 회의를 하고, 저감스티커를 붙인 국도를 1년 정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만으로도 정책을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유영 다들 화가 났을 때 활동가 정체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 전 두환이 죽었을 때 정말 속이 너무 들끓더라구요. 이거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저는 페미니스트인 것은 그냥 자기 성향인 거고, 이제 활동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상담소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선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을 같이 일상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학교나 과거의 병원에서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상담소는 공간 자체가 그런 공간이었어요. 제가 꿈꾸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공간이요. 제가 지금 전교조 여성위원회 활동이나 여성학 책 스터디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유영 저도 생각하는 걸 상담소 안에서라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잘 들어줄 거라는 감각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게 많이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상담소에서의 나의 활동을

3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유영 여성! 연대! 과로! 지금도 저녁에 상담소의 불이 얼마나 환한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키라 연대! 도전! 나의 리즈 시절! (우와)

지선 감수성! 도전! 함께! 

 상담소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유영, 키라, 지선,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했던,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할게요!

7월 7/1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
7/5~7/27 제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7/22 릴레이 토크쇼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2부 주체편>

8월 8/17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1강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 : 성적자기결정권 의미를 중심으로>
8/20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여기에서! 연속특강 2강 <강간죄개정운동, 역사와 과제>
8/24 토크콘서트 <강간죄, 우리가 바꾸자, 지금 당장>
8/26 온라인 국회 토론회 <백래시 한국사회, 혐오가 아닌 성평등을 이끄는 정치로>

9월 9/1~9/16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9/15 발표회 <성폭력사건 해결의 '법 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
9/30 릴레이 토크쇼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3부 응용편>

된다
상담소

10월 10/7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온라인 기념식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10/11 세계커밍아웃의날 균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국방부는 평등의 문을 열어라>
10/12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

11월 11/6 회원놀이터 <나의 자기방어 말하기>
11/9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영상 발행
11/1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도보행진 <#평등길1110>
11/19 기자회견 <대선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성평등 외면하는 퇴행적 대선정국 규탄한다>
11/19 백래시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의 온라인 집회 <스트릿 페미 파티>
11/23 토론회 <젠더폭력으로서의 스토킹, 이제는 '처벌' 가능해야 한다>
11/25 기자회견 <학교 내 불법촬영, 교육부 대책을 촉구한다!>
11/27 1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죽은 자가 돌아왔다>
11/29 토론회 <권력형성폭력 대응,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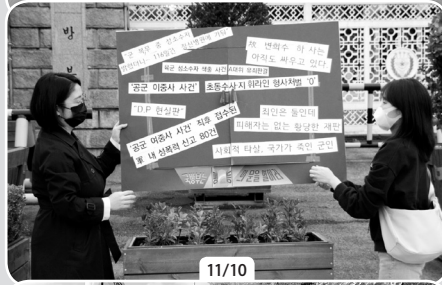
12월 12/3 온라인 한해보내기 <평범한 우리의 비범한 일상>
12/3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X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12/4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농성
12/8 온라인 국회 토론회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 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할까?>
12/17 집담회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킵' 1차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판찮은가?>
12/22 차별금지법 제정 연내 쟁취 농성장 지킴이
12/24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가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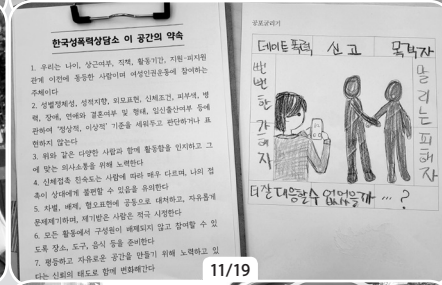
7/1



8/24



10/11



11/6



11/10



11/19



11/19



11/25



11/27



12/22

군대 내 성폭력 전면 대응 시스템, 이제는 '실행'되어야 한다.

오매_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9

유독 마음 무거운 소식이 많이 들려온 여름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만 바뀐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며
군대 내 성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상담소 소장 오매가 군혁신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매의 치열한 활동 기록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2021년 5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여군 중사가 사망했다. 상사가 부른 사적 회식을 마치고 선임에게 강제추행이 있었다. 피해자는 다른 선임에게 바로 보고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 조사와 상담이 이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구속도 없었다. 피해자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의자 조사 지연 이유였다.

유족이 인터넷에 공론화한 후 여러 움직임이 이어졌다. 여당은 국방부와 TF를 꾸려 법제도개선,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담소에서는 6월 1일 추모논평*을 발표했다. 당시 여러 성폭력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닥뜨리던 시기였다.

6월 3일 긴급촉구 성명**을 또 발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공군 법무실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했는데 피해자 병과, 기수, 피해자 배우자 병과, 기수가 그대로 수록된 자료였다. 이 자료가 여과없이 언론에 배부되었다. 필자는 1기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항의했는데 공군 법무실장은 직접 연락을 해와 평소에도 그런 자료를 제작한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보고하면 상사들은 항상 “피해자는 누군데?”라고 궁금해해서라고. 피해자에 대한 소문 내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이라 하면서 보고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상사들이 궁금해하고(“알아야 보호도 가능하고”), 자료로 만들고 제출해야 하는 군대, 이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국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공군 법무실의 모습. 어디부터 군 내부 시스템을 바꿔야 성폭력 문제해결 최소한의 출발선에 이를 수 있는지 놀랍고 답답했다.

6월 3일 본 상담소가 사무국을 담당하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에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곱가지를 촉구했다.

* 2021.6.1. 한국성폭력상담소 추모논평 “용기 내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정의로움 문제해결을 거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 2021.6.3 한국성폭력상담소 긴급촉구성명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지도 제출하지도 배부하지도 맙시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 2021.6.3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라”

- 유명무실한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을 당장 마련하고 시행하라.
- 여군을 배제하고 관심병사화하는 성폭력 대책은 무력하다. 여군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보장하고 지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여군 부사관들의 지위를 정상화하라
- 피해자와 군대 구성원들의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군기강 중심주의를 전면 바꾸라
- 군대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외부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라
- 군대 내 권력 관계를 견제하지 못하는 군대 내 사법체계를 중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라
- 양성평등담당 기구들의 일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

이 사안에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에 여군을 ‘관심병사화’하는 긴급 지침이 난무하거나, 군대 위계 내 하위인 양성평등센터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걸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 내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군인권센터와도 간담회를 했다. 중요한 것은 군대 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1) 독립성 보장된 군인권보호관 제도 전면 입법시행 2) 평시 군사법원폐지 3) 군대내 성폭력전담기구 마련안은 이미 구체적 검토까지 마무리되었으며,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과제였다.

여당과 국방부가 협의하며 입법안의 수위가 낮아지던 6월 말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만 80여명인 대규모 위원. 필자도 2분과인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개선 분과에 위촉되었다. 두 달 넘는 분과회의의 성과는 성폭력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직도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부터 사건공개와 법적고발 부담 없이 상담, 지원받는 체계를 논의한 점, 또한 ‘성희롱’ 진정, 심의 내실체계 마련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국방부 주도의 대책마련 및 실행을 위한 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각군 총장의 책임, 각군 양성평등개선의 책임의 분담과 연결, 법무와 인사분과에서의 2차 피해 예방책임, 이 가운데 생길 성폭력전담조직의 책임과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주목하지만, 어디에서 사고가 터지고,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해

서 '이제는 어떻게 체계화되겠구나'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필자는 다른 위원들과 상담소 활동가 논의를 통해 위원회를 8월 26일 사퇴했다. 중도 사퇴한 위원 대열에 함께한 것이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해 국방부 수뇌부들이 나서서 반대자료와 발언으로 점유하고, 국회에서 민관군합동위원회도 군사법원 폐지에 애매한 입장이라고 왜곡 보고하고, 회의 지연 및 파행 등으로 의결과정을 축소하는 과정을 본 후의 결정이었다. 중도 사퇴로 제대로 된 변화를 촉구할지, 남아 논의를 이어갈지 마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참여하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서 짚어야 할 것 네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 번째, 공식회의에서 장성과 장교들이 부하와 병사들, 부사관을 '우리 애들'이라고 표현하는 문제. 공식회의에서도 차 외부위원들 앞에서 그렇다면 이런 조직문화에서 개개인 사람들이 어떻게 권리보장을 요구할지 우려되었다.

두 번째, 군이 '정상가족화' 되어 있는 문제. 군 내 성평등 실태에 대해서 질 문했을 때 "우리 군은 셋째 낳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다들 만족도가 높다"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 결혼과 출산율이 높은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보고, 셋째를 낳으면 총장이 축전을 보내는 것이 양성평등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라면 평소에 성과 재생산과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편견 없는 권리와 안전보장이 아니라 소문내기, 특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만연할 수 있다.

세 번째, 군대 내 지휘-기강-전시태세와 인권보장이 어떻게 공존할지 정리되어야 하는 문제. 군은 모든 것을 보안이라고 하면서, 상사보고에서는 피해

자 정보까지 다 자료화하고 있다. 또 언제 전시가 될지 모르니 평시군사법원 폐지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군대 내 법무가 계급에 따라 좌우되고 피해자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문제는 방지한다.

네 번째, 남초집단에서 남성중심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문제. 국방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경찰이나 군대는 남초인 공공기관인데, 남성 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관점의 연구는 없었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피드백을 들었다. 여군, 소수자 군인이 2차 피해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군대 자체의 젠더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군대 내 피해자들이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는 전면적인 시스템 변화를 '실행'해야 하는 때다. 

법정에 선 성폭력

파랑_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9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쏟아지는 역고소 위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상담소는 2017년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이후에도

가해자의 역고소에 꾸준히 집중해왔는데요,

지원자 관점에서 본 성폭력 가해자 법시장화 문제를 짚어봅니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매우 공손하고 주눅 든 목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로 시작하는 그 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전화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가해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쉽게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상담받나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땀땀하다면 성실히 조사 받으라고, 알아서 변호사 알아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전화를 끊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 변호사 이야기까지 했을까. 또 생각합니다. 내가 왜 자괴감에 빠져야 하지? 가해자들 여기에 전화하지 마!

이렇게 가해자 전화가 종종 오는 만큼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법시장화 움직임에 일찍이 주목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상담소의 부설연구

소 올림 김보화 책임연구원의 박사 논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 강화가 가져온 법 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성범죄 전담 법인의 등장과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피해자의 책임과 고통의 증명으로 이전되고, 가해자의 역고소를 통해 역전되는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법적 절차를 조력하는 역할만 강요받는 반성폭력 운동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습니다.

발표회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고민하는 지점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피해자를 주눅 들게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느끼는 것은 단연 역고소입니다. 사건을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분이 역고소를 우려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역고소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은 경찰서나 주변인들에게 역고소 위협이 있다는 것을 과도하게 듣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라는 말을 듣다 보면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 위협에 착잡해지곤 합니다. 물론 역고소가 우려될 때도 있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역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생존자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불기소되자마자 가해자들은 본격적으로 역고소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를 위한 로펌에서 이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증인들을 모해위증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사건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고소하여 피해자 지지자들을 전략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무고로 고소하는 가해

자도 있습니다. 스스로 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역고소로 원치 않게 고소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송의 대응 시간,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에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역고소도 문제지만 성폭력 사건이 법적인 해결에만 집중되는 현상도 조력자로서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성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고소가 유일한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도 더 이상 공동체 내에서 사건을 해결할 자원이나 토대가 부재하기 때문이겠지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온전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형량을 많이 받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으면 될까요? 우리의 치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담소에서 활동하는 내내 저의 가장 큰, 상담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정답도, 해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법적인 해결에만 치우치고 법정에서의 승소가 온전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피해생존자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력하는 방법은 법적 지원 말고도 많습니다. 치유에 집중하는 방법, 일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함께하는 방법, 더 많은 피해생존자와 함께 연대하는 방법. 각자의 위치에서, 개개인이 가진 자원을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이 글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87,964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1년 전체상담은 1,415회(595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322회(537건)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3%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건수는 초기상담만을 산정한 단위고 횟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단위입니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상담 및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지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초기 상담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상담현황

[표 1] 최근 3년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년~2018년 상담 통계 종략)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	715	91.8
2021	1,415	595	537	90.3
총	87,964	58,209	49,092	84.3

●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여성 피해자 ██████████ 93.5%
남성 피해자 █████ 5.2%

성폭력 상담 전체건수 537건 중 502건(93.5%)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29건(61.3%)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의 비율이 2020년 70.8%에서 61.3%로 약간 줄어들었고 여성 청소년(2020년 10.3% → 2021년 13%)과 여성 어린이(2020년 6.9% → 2021년 9.7%) 피해자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5.2%(28건)로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습니다.

●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 중 남성 ██████████ 89.8%
남성 가해자 중 성인 ██████████ 66.1%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37건 중 482건(89.8%)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55건(6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 65.9%
대리인이 상담의뢰 ██████████ 32.6%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537건 중 354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17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습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106건

(1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강간 피해 상담 건수 거의 비슷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193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간 피해 상담 역시 190건(35.4%)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의 경우, 2018년 28.5%, 2019년 31.1%, 2020년 34.4%에 이어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63건(11.7%)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일 경우 강간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습니다.

●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가해자 중 성인 가해자 비중 ██████████ 70.4%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378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였습니다.

●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 84.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52건(84.2%)으로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4건(37.7%)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42건(11.8%)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0건(27.8%)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4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36건(64.3%), 9건(64.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순대로 통계를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4%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 14.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대응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내용

본 상담소가 2021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횟수로 표를 집계하였습니다. 심리 정서 지원이 865회(48.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639회(35.5%)로 많았습니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 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단체를 안내하거나 기관에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입니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 경우입니다. 

자립에 대한 환상과 실제

은서

2019년 5월 처음 열린터를 나가 자립하게 된 날, 그날 나는 누구보다 개운하고 흥분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열린터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자립보다는 자유롭지 않은 규칙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열린터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를 했었기 때문일까. 열린터 생활에서 많이 울고 힘들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결국 돈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축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버는 돈의 70%를 저축하면 100만 원을 번다했을 경우 3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놀기를 좋아하던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열린터 다이어리〉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쓰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편집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것 말고도 사람과의 마찰, 통금과 외박 제한 등 생활인을 지키기 위한 수칙이 나에게도 전부 압박으로 다가왔다. 결국 열린터에서 편의를 봐줘 대학을 다닐 한 학기 동안 열린터에서 더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립을 하였다. 그 당시 인간관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나머지 즉흥적으로 자립을 다짐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부동산 앱을 설치해 자취방을 직접 알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법.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반지하방 한 칸도 얻기 힘들었다.

간절히 원하면 다른 방법이 나타나는 것인지 마침 어머니와 동생이 사는 한부모보호시설에서 나의 입소를 받아준다고 하였고 결국 나는 시설을 옮기는 식으로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부모보호시설의 경우 원룸에 한 가족이 사는 형식이었고 통금시간과 약간의 저축 규제만 있고 열린터보다 굉장히 자유로웠다. 그렇기에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결국 완전한 자유시간을 원했던 나는 그 시설에서도 독립하고 학교 근처 자취방을 얻는 수순을 밟았다. 한 학기 단기로만 계약을 원했기에 같은 집이라도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 그 당시 나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집을 7개월 계약하게 되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모아둔 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되었다. 알바를 했지만 매달 적자가 났다. 학교에 다니면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주말 알바 2건과 평일 알바 1건을 뛰어 한 달에 150만원 수입이 생겼다. 그러나 우선 월세와 관리비로 50만원이 빠져나가고 보험비 20만원 휴대전화 요금 8만원 같은 고정수입만 제외하면 한 달에 72만원이 남았다. 72만원이라고 적으면 굉장히 큰돈 같지만 매달 식비, 학교 재료비, 교통비, 생필품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몇십만 원 정도가 남았다. 열린터에서 나와 자유롭게 놀고 사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는 자립을 꿈꿨던 나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으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돈

이 모자랐던 나는 결국 저축된 금액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축된 금액도 한계가 있는 법. 결국 나는 남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결코 자립 후에 내가 꿈꾸는 삶에서 생각하는 장면은 아니었다. 물론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자취 경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했지만, 그때와 다르게 변한 내가 쓰는 씬씀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생활인의 경우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시설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저축을 하고 아껴 써야 했던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랬기에 나와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쓰고 싶을 때 돈을 쓰려고 다짐을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다짐이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소비 습관 때문에 아직도 고생을 하는 현실이다.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내가 다른 생활인, 혹은 쉼터에서 사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립 후에 현실이 절대 행복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지금 쓴 상황을 혹시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겪는 현실은 매우 다르며 열림터에서 사는 기간동안 되는 한 최대한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돈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적었지만 사실 자립 후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정신 건강이었다. 열림터에 들어온 생활인들은 모두 각자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 피해는 결코 열림터에 사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삶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피해 사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은 결국 길면 평생 짧으면 몇 년은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열림터에 있다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므로 다른 상황보다는 쉽게 자신의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한편 자립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자립 후 나의 경우 피해와 관련해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정신이 피폐해졌을 때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장 동료에게 나

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일을 들은 직장 동료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그럼 왜 네가 가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는지 등의 2차 가해가 이어졌다.

물론 그 직장 동료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알지만 믿었던 직장 동료조차 그런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시설에서 나왔다고 한들 나는 여전히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며 정신과 약을 챙겨 먹는 사람이었고 트라우마에 마주치거나 감당할 수 없게 많은 스트레스를 마주하면 다시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럴 때 열림터에 있었다라면 적어도 극단적으로 안 좋은 행동은 하지 못하게 막히고 또한 너무 힘들면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등 조치가 취해지지만, 자립하고 혼자 있는 상태일 때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온전히 나 혼자서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데 실제로 독립한 같이 살았던 생활인들도 이런 상황이 빈번히 찾아온다. 또 자해를 하는 등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한 힘들음을 풀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거의 술을 먹으며 잊으려 애썼는데 그 결과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알코올 중독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고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을 다루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립하고 나서도 정신과를 꾸준히 찾아가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자살 시도를 하기 직전 혹은 자살 시도를 했을 때 기억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항상 그때의 나는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지 않고 있었고 약 또한 먹지 않았던 상태였다. 물론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고 약을 챙겨

먹는다고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나아지고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을 챙겨 먹지 않고 정신과를 다니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자립을 하고 나서도 너무 위험한 상황에 부딪친다면 국가기관이든 혹은 열림터에 다시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든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지금은 나는 꾸준히 약을 먹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우울한 감정에 깊게 빠져들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다니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 약을 조정하고 너무 힘든 생각이 든다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 볼 수도 있다. 또한 주위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립을 하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쁜 일도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힘든 일과 슬픈 일도 많다는 것이다. 자립의 환상을 가지고 그 뒤에 숨은 단점을 못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러한 글을 쓴다. 열림터의 생활인들이 혹은 생활인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

꼬맹이와 돌맹이

초록

여기저기 흥지고
 뽀족해진 꼬맹이
 가시가 돌아나
 침묵으로 산다

이리저리 차이고
 밟혀진 돌맹이
 날카로운 모서리로
 반짝임을 감추고 산다

밤길 모퉁이에
 꼬맹이는 돌맹이를 본다
 반짝 신호를 준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준다

우리는
 재잘재잘 말하고 산다
 우리는
 잘 여문 알맹이

나의 요즘

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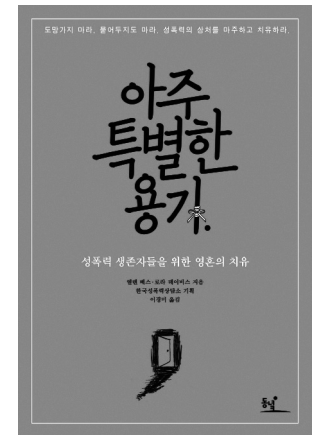
나는 요즘,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잠시 떠나 독립하는 과정을 찾고 나아가고 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나에게 세상은 성폭력으로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난 내 상처를 세상에 꺼내놓고 싶어졌다. 세상이 내 상처를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나에게 세상도 조금 더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두렵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의 난 내 기억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해보려고 하고 있다.

한수도 공동체에서 내 꿈을 찾고 실현하기 위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지냈다.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나의 내면을 잘 만나고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 사회에서 나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다. 많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내 가정이 얼마나 병들어있는 것인지 만나서 상담도 하고 면담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했고, 괜찮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도 했다.

공동체에 들어와 지내면서 잘 지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다. 그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가족과 관련된 일인데, 그때 당시 ‘나의 기억에서는 이미 내가 아는 것들인데, 왜 나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유난스러운 걸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 공동체에서도 망가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보기엔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으니 오히려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더 잘 지내야 한다고 부추겼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나의 여정을 도와주던 한 분이 책 한 권을 소개해주셨다.



그 책을 보는 순간 눈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 눈물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눈물이 나니까 실컷 울었다. 울어도 울어도 마음은 무거워지고, 해소되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아직도 충분히 울었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울었다. 책을 보고 난 후 잠시 일을 하고 있던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어? 이건 나에게 있었던 기억인데, 동생이 왜 내 몸을 만지지는? 왜 사촌오빠가 나오지? 이게 뭐지. 이게 뭐길래 이런

게 혼란스럽고 심장이 빠르게 뛰지?

함께 동반해주시는 분께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분께 들은 대답은 ‘근친상간’이었다. 아, 이게 근친상간이라고? 나는 그날 떠오르는 기억과 밀려오는 감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매일이 지옥같았다. 이런 지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나에게 하느님은 배신자로 느껴졌다. 함께 살고있는 분들이 다 미워보였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기억은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떠오르게 했고, 그 기억 속 가해자가 아빠라는 걸 알았다. 기억이 너무 힘들고, 가족이 너무 좋았던 나는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로 기억을 저 바닥까지 숨겨놨고 기억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로 기억을 했던 것이다. 죽어도 아빠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까. 어쨌든 기억을 찾는 과정을 돌아보면 아빠가 그랬다.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난 내 꿈을 위해서, 또 정말 더 큰 꿈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삶이 그 기억과 상처로 인해 멍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있었던 일이나고 원망도 하고, 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부정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만 더 힘들어져서 누군가에게 계속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했다. 그리고 계속 표현을 하라고 옆에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 떠오르는 것들을 표현하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화를 내고, 울고, 가해자를 탓했다. 난 믿을 수가 없는데

나보다 더 믿어주셨다. 지옥 같은 시간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을 보기 시작한 그 순간 많은 기억들을 만났다.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이 찾아와 나를 흔들었다. 참 많이 아팠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성폭력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조차 나에게 너무 어려웠다. 내 방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욕실에서. 기억 속 나는 인형같이 보였다. 아무 힘이 없고, 흐물흐물거리는 나는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안간힘은 성폭력이 끝난 이후에도 항상 내 삶에서 나를 살려주는 방법과 같았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을 떠올릴 땐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 그 감각을 느끼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고, 미워지니 다시 누르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피하면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안다. 또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사니까, 나만 피곤하지.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을 해보려고 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느끼고 표현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그 시간을 반복했다. 그러다보니 함께 사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나의 원가족처럼 보이긴 했지만, 더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애를 썼다. 참 많이 썼다.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에 대해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늘 권위로 밀렸고, 그 권위에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폭력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어머니는 가정을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두 나르시시

즘의 싸움으로 나와 동생은 늘 새우등 터지듯이 온갖 욕과 폭력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까지. 나의 세상은 폭력이 전부였고, 폭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두 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옆집도 다 이려고 산다.’였으니까.

어린아이가 세뇌를 당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자녀들을 도구로 여기는 대상이 늘 옆에 있으면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 가정 안에 고립되게 되고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합리화 하게 된다. 나는 참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고, 늘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지만, 폭력을 합리화 했기 때문에 내 기억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정신없이 1년을 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분명한 건 희미했던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아주 작은 빛이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고 느꼈다.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의 상처를 꺼내놓아도 안전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울어주셨다. 살면서 가족들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공동체에서 많이 받았다. 조금씩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잘못했는지도 알았다. 나는 정말 학대의 중심에서 살았구나, 그것도 나에게 참 큰 아픔이기도 했지만 내가 벗어났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 과정을 열심히 지나와 나는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를 정면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공동체는 함께 사는 곳이다 보니 그것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래도 혼자서 내 상처도 다시 보고, 세상에 나가서 더 큰 목

소리를 내고 싶었다. 좀 더 나를 위해 살아보고 나면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난 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아직도 성폭력으로 보였고, 남자가 무섭고, 길을 걸을 때마다 긴장이 되었고, 가끔은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캄캄한 시간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아. 이것이 나의 후유증이구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화가 났고, 속상했고, 억울했다. 잘 지내고 싶었는데 늘과 같은 어둠이 다시 나에게로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의 나를 보면서 나는 다시 우울해져버렸다.


성폭력 때문에!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많은 순간은 그놈의 성폭력이 지배했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많이 보였다. 공동체 바깥으로 나와서 가장 많이 만난 나는 그런 모습의 나였다. 가족도 뒤통도 없는 난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고, 다시 함께 하고 싶었다. 나온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간다는 것은 참 염치가 없다고 느꼈다.

내 마음은 더 깊이 우울로 빠져버렸고, 나는 온갖 공포 속에 빠져있었다. 그 마음을 어쩔 줄을 몰라 혼자 버티려고 했다. 성폭력을 혼자서 감당했던 것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다시 성폭력으로 빠져들어간다.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고 싶지 않았고 나는 다시 뽕뽕 숨으려 했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공동체는 나를 다시 잡아주었다. 나와 함께 해줬고, 나는 다시 마음을 잡았다. 기억을 만나자. 기억을 정리하자. 그 기억과 마주하자.

기억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 흔들린 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아픔이었다.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 집에서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고, 아프다고 말하면 나를 버릴까봐 겁이 나서 말을 하지 못했다. 마음에서 수없이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 아프다는 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받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아주기만을 바랐다.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겠지만,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픈 것은 꿀을 짓이고 꿀는 것이 터져버리면 내가 나를 버릴 것만 같았다. 나를 버리는 것은 이제 그만 하고 싶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안아주고 싶다.

쉽지 않은 여정일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상처를 상처로 보기가 어렵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력은 그런 부분을 더 자극시킨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 삶이 성폭력으로 지배되는 것은 더욱 싫다. 나는 나이고 상처는 상처이다. 그리고 그 상처가 흠이 아니다. 상처를 다듬어 가는 시간 속에 지금의 내가 있다. 지금의 나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누구보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는 분들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시 자신의 싹을 틔우려고 힘을 내고 있고, 나는 그 분들의 과정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과 연대해서 이 과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그분들과 함께 이 과정을 나아가고 싶다. 나의 방식으로.

내가 확신에 차 있을 때 그 상처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무의 나이테로 보인다. 더 큰 성장을 위한 나이테. 우리는 그 상처를 마주할 때, 더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세상에 큰 소리를, 이 시간을 통해 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더 나은 내가 되리라 믿는다. 얍! 

내가 화요일마다 상담소로 출근하는 이유

이도경_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9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상담소는 아주 특별한 공익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이도경 변호사가 주인공인데요,
상근변호사 없는 상담소가 어떻게 변호사님과 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상담소 사무실 책상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가끔 상담소를 방문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자원활동가세요?” 하고 물어옵니다. 그럼 저는 “아뇨, 자원활동가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다소 어렵습니다. 그 질문들은 대개 짧은 자기소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될 하는 사람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저의 공적 자아가 가진 이름입니다. 공익펠로우 제도는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자 하는 신입변호사나, 저연차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센터와 채용과정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의 내용이 관심 있는 공익분야에서 스스로가 기획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활동계획에 반성폭력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고, 협력기관으로 상담소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상담소로 출근하는 것은 자원활동이 아닌 유급노동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상담소 상근활동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로스쿨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반성폭력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말뿐인 다짐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고, 2019년 여름방학 때 마침 상담소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열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합정역 근처, 회색벽돌로 쌓아올린 상담소 건물에 가보게 되었어요.

실무수습생들이 썼던 공간과 활동가분들의 사무공간이 다른 층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은 활동가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활동 기간도 2주로 짧았었고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반에 잠깐, 활동가분들을 팀별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실무수습생들끼리 1층 공간에서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활동가분들의 식사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실무수습 활동으로 상담소와의 인연이 마무리되었다면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협력기관을 정하는 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 직후에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100시간 성

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실무수습보다 교육 신청을 먼저 했었지만). 그 해 여름에 활동가분들을 포함하여 상담원 교육을 해주신 분들, 함께 교육을 들었던 분들과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얘기들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로스쿨에 지원했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함께 하는 변호사분들이 이미 꽤 많았고, 활동가분들도 변호사와 어떤 식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꽤 깊은 이해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상근변호사는 없는 단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담소와 보다 깊게 결합하는 변호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의지적으로) 로스쿨 생활을 하는 동안 상담소와 인연을 만들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여차저차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화요일마다 상담소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는 특별히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간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답변해드리거나, 판례 아카이빙 작업을 하거나,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화요일만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담소에서 격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에도 매번 함께 해요. 단독 상담이 배정된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상담소에 신청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상담에 배석하여 상담과정을 듣고,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상담팀 업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상담소가 아닌 센터로 출근하는 날도 상담소에서 요청한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일도 있습니다. 상담소와

함께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고요. 상담소에서 요청을 한다면 개별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도 하게 되겠지요.

적어놓고 보니 무언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업무량이 적당히 있는데, 저는 종종 이 정도로 충분할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저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뛰어드는 것을 유예하고 법공부를 했다면 어쨌거나 무언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 더 활동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 일 자체가 처음이고, 상담소는 이런 형태로 변호사랑 일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아직은 서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에 앞으로도 상담소에 상근, 혹은 반상근 변호사가 있다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아주 기쁠 것 같아요.

글을 다 쓰고 나니 중요한 걸 빼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소를 늘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5월부터 상담소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정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 관리의 비애

란 _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예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합정동 어느 골목길에 양 옆의 오래된 정겨운 집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흔히들 옛날 집이라고 하면 머리에 금방 떠올리는 특별하지 않은, 그렇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편안해지는 2층 집이요.

커다란 대문 옆 작은 쪽문을 열면 사람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기다란 길이나오고, 왼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오른쪽으로는 반층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나왔지요. 왼쪽 계단을 오르면 바로 옆 감나무 집의 귀여운 하얀 강아지 방실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낯익으며 인사를 나눠주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현판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쪽문을 따라 들어와 반층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면, 작은 텃밭과 여러 집회시위 용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어요. 동네 길냥이들의 화장실과 추운 겨울 내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줬던 곳이었습니니다.

2014년 부설 연구소 올림의 재개소 논의를 하면서 그동안 좁고 낡고 좁았던 상담소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어요. 때마침 상담소가 위치한 집터를 사겠다는 사람도 등장했고요. 주변 부동산에서 ‘사무실’로 쓰일만한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간을

돌러보았지만, 정든 합정동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그 터에 다시 새로운 상담소를 짓기로 하고 2년을 꼬박 준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새로운 공간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미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간에서 발생할 여러 일들요. 상담소 건물을 설계하던 건축사 분이 ‘새로운 건물에 자리를 잡는데는 최소 5년이 걸린다. 건물도 사람처럼 자리를 잡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 4년 동안은 큰 문제없이 (이 새로운 건물과) 잘 지내왔죠. 그런데 너무 건물 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걸까요. 아니, 미숙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걸까요. 2021년 8월 30일,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어요.

이른 아침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8월 9시 출근 담당을 하던 파랑 활동가였습니다. 지하에 물이 차올랐다고요. 그때만 해도 전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지하에? 물이? 에이 설마’ 라고 생각했죠. 지하 화장실 세면대 아래 호스에서 물이 샌 적이 이전에도 있었기에 화장실 바닥이 약간 젖은 상태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 파랑 활동가의 말을 곱씹을수록 이상했죠. ‘엘레베이터가 안 꺼져요.’, ‘발목까지 물이 찼어요.’ 이상하다..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바로 오매 소장에게 전화했어요. 행동력이 빠른 오매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바로 “구청에 양수기 대여해주는지 물어봐야겠어. 내가 구청에 들러서 가지고 올게” 라고 했죠. 급하게 사무실에 와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미 차단기가 내려가 지하 1층은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암흑 같았고, 정말 물은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전체가요. 엘리베이터 밑

공간에도 물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화장실 세면대 하단 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하수도 물을 지상으로 퍼올려야 하는 배수 펌프 2개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지하 1층 뒷 벽면을 채우고 있던 책장 안의 주요 서류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이미 젖어버린 상태의 서류뭉치들은 제대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상담소 힘쎈이 감이와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들이 거의 책장의 옆부분을 부수듯이 서류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지하를 가득 채운 물은 구청에서 대여한 양수기 2개로는 도저히 빼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백목련 활동가가 검색으로 양수기업체를 급히 찾았어요. 오후나 되어야 도착한다는 말에 그대로 있을 순 없어 활동가 모두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외부까지 일렬로 서서 빈 쓰레기통으로 물을 퍼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땀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수분기를 온몸에 가득 품은 채로 열심히 퍼오르던 그때, 다행히 양수기업체 사장님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 하단에 가득 찬 물부터 빼내기 시작했어요. 거의 하루종일 걸려 지하 1층에 넘실대던 물을 모두 밖으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에 고인 물을 퍼올리는 활동가들

차올랐던 물이 다 사라지고 난 지하 1층을 바라보자니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침수 상황이 생기고 오매가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사장님이 ‘다친 사람이 없으면 됐다,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침수 상황에 다행히 전기 차단기가 잘 내려가 전기가 차단되었고, 다행히 바닥 전기 패널 외 다른 전기의 고장도 없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전기용품들은 떠나보내야 했지만 교체 예정이었던 물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건물 관리에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배수 펌프의 고장을 미리 알아챘더라면, 누군가가 세면대 아래 호스 누수 상황을 살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코로나19로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사용이 저조했던 지하 1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오매 소장은 자기 책임이라며 한동안 자책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지난 11월 거의 한 달 동안 보수작업을 거쳐, 지하 1층은 다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들이게 되었지만, 또 비용을 들여 건물 관리의 책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로 상담소 공간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는 감각이 장착되고, 상담소 공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스캔하여 적재적소에 비치하여 두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가동되는 체계와 사전 훈련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죠. 무엇보다 새로 지어진, 지난 5년 동안 잘 자리 잡은 상담소 공간에 대한 애정도 더욱 살아났습니다. 말끔한 외관, 딱 떨어지는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공간에 스며드는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내 집 같지 않아 낯설었던 곳에 빈 구석이 보이니 더 가꾸고 길들여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는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린터, 울림에 보내주시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시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Kristen Yeo, 강민혜, 강소희, 강수빈, 강이준, 강지수, 고민혁, 고정민, 고희선, 구분효, 구자욱, 권순호, 권지연, 권태은, 김지혜, 김다현, 김미경, 김민희, 김병준, 김봉후, 김선아, 김선혜, 김수연, 김수진, 김아름, 김용만, 김원우, 김은경, 김은선, 김익수, 김중혁, 김중휘, 김준, 김준태,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형, 김해숙, 김해경, 김환중, 김효진, 김희성, 나하은, 남지연, 남태진, 노희민, 류길훈, 류주형, 박다혜, 박수진, 박슬기, 박영진, 박유화, 박은화, 박재진, 박준기, 박진선, 박진화, 박혜상, 배종수, 배진화, 백경원, 백승재, 범승우, 서상길, 서은우, 서재선, 서정호, 서주은, 석진주, 선주훈, 세움교회, 손민우, 손정빈, 송수진, 송유진, 신기훈, 신소현, 안서희, 안현수, 양영오, 양지연, 어혜인, 여환진, 오유진, 오의정, 원선우, 유니유니, 유지예, 윤보섭, 윤승효, 윤어은, 윤영선, 윤인규, 윤희정, 이기영, 이강익, 이광조, 이도현, 이선택, 이수정, 이우원, 이의중, 이상하, 이정현, 이종목, 이주영, 이지유, 이진희, 이태희, 임두옥, 임보라, 임서준, 임종섭, 임현진, 장규범, 전영진, 전현정, 전해림, 정진, 정관식, 정자아, 조나단, 조상은, 조임춘, 조재희, 조주영, 조한솔, 조혜송, 조현우, 좌유빈, 지안, 진시우, 최성민, 최정택, 최지연, 최태준, 최현태, 추상아, 추선미, 추현수, 하지수, 허진, 허광은, 허성민, 현수진, 홍서진, 황보승태, 황유미, 황유원, 황지원 (이상 152명)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주)피알관측, (주)한샘, 강기람, 강경인, 강공내, 강동화, 강동희, 강동록, 강민지, 강보길, 강상현, 강소연, 강소희, 강숙영,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예진, 강윤정, 강은진, 강인화, 강재원, 강재희, 강지연, 강지윤, 강창일, 강태원,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보경, 고봉섭, 고선주,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임수, 고재경, 고재영,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태우, 고하영, 공경희, 공다연, 공수현, 공주, 광경화, 광민환, 광복모, 광사아, 광영화, 광옥미, 광윤이, 광은지, 광희진, 광현지, 구민주, 구민희, 구범석, 구향모, 구현모, 구현지, 구혜린, 국민, 권경아, 권구홍, 권건현, 권나현, 권다혜, 권미정, 권서현, 권세린, 권세윤, 권소영, 권솔, 권수현, 권수혜, 권영신, 권예선,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정, 권홍빈, 권홍중, 금철영, 갈애솔, 갈은정, 김가림, 김가영, 김가인, 김가현, 김강빈, 김경선, 김경아, 김경진, 김경찬, 김경희, 김계진, 김고은, 김광진, 김광현, 김규원, 김규호, 김기로, 김기태, 김기해, 김나연, 김나연, 김나은, 김나희, 김남형, 김남준, 김다미, 김다영, 김다운, 김다운, 김다운, 김다혜, 김다희, 김다희, 김다현, 김대근, 김대삼, 김도린, 김도연, 김도열, 김도윤, 김도홍, 김도희, 김동령, 김동환,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로사, 김리나, 김명민, 김명선, 김모래, 김문영, 김문주, 김물결, 김미경, 김미라, 김미량, 김미래, 김미선, 김미순, 김미현, 김민진, 김민규, 김민기, 김민범, 김민수,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철, 김민태, 김민환, 김범선, 김병관, 김보명, 김보연, 김보정, 김보화, 김상미, 김상원, 김상정, 김새물, 김셋별, 김서화,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에, 김선재, 김선제, 김선화, 김선희, 김성동, 김성모, 김성문, 김성미, 김성수, 김성욱, 김성자, 김성중, 김성희, 김세원, 김세윤, 김세희, 김세희, 김소라, 김소연, 김소정, 김송연, 김송이, 김수, 김수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잔, 김수중,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 김수현, 김수희, 김수희, 김순영, 김순자, 김슬아, 김승연, 김승재, 김승현, 김승호, 김시연, 김사우, 김시원, 김신아, 김신효정, 김안나, 김안나, 김애라, 김양지, 김양지영, 김양희, 김엘림, 김어진, 김연경, 김연경, 김연수, 김연수, 김연우, 김연우, 김연우, 김연재, 김연희, 김영나, 김영롱,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택, 김영환, 김영희, 김예람, 김예리, 김예림, 김예을, 김예은, 김예지, 김요섭, 김용선, 김우연, 김원국, 김원식, 김유리, 김유림, 김유빈, 김유영,

김유진, 김윤경, 김윤경, 김윤아,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별, 김은솔, 김은아, 김은정, 김은하, 김은희, 김은희, 김이슬, 김이슬, 김인솔, 김인숙, 김인혜, 김재원, 김재원, 김재호, 김재희, 김정덕, 김정민, 김경수, 김정아, 김정완, 김정은, 김정형, 김정혜, 김정희원, 김종용, 김종희, 김주아, 김주연, 김주영, 김주은, 김주원, 김주희, 김주희, 김준, 김준범, 김준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찬, 김지현, 김지현, 김지호, 김지훈(김해리), 김진리, 김진범, 김진아, 김진중, 김재연, 김재연, 김재영, 김창명, 김춘화, 김솔배, 김치연, 김탁환, 김태원, 김태원, 김태희, 김하나, 김하나, 김하나, 김하림, 김하영, 김하은, 김학선, 김한선혜, 김한솔, 김해경, 김현수,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직, 김현진, 김형근, 김형수, 김혜민, 김혜선, 김혜선,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원, 김혜은, 김혜은, 김혜연, 김혜정, 김혜준, 김혜지, 김혜진, 김혜진, 김혜진, 김호연, 김호희, 김화숙, 김효선, 김효숙, 김효진, 김효진, 김희경, 김희경, 김희라, 김희란, 김희영, 김희원, 나미나, 나윤경, 나윤지, 나인선, 나인영, 나혜선, 나희영, 남매아리, 남민영, 남수민, 남순아, 남슬아, 남은영, 남정구, 남정현, 남지은, 남지영, 남현미, 남현우, 남현지, 남효정, 노미선, 노선이, 노성윤, 노영은, 노유성, 노윤주,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태운, 노희선, 디트리그롭(주), 도경선, 도병욱, 도서출판 움직씨, 도정호, 류란, 류신희, 류지은, 류진희, 류하연, 류현진, 류호운, 류호정, 류호찬, 류희중, 마민지, 마준희, 명신상회, 목소희, 무인카페 쉬는시간, 문경희, 문귀영, 문기선,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오, 문형준, 문혜준, 문효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영, 박기민, 박기완, 박나연, 박다위, 박덕인, 박명선,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서진, 박서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용, 박성주,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연, 박소희, 박솔, 박송이,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수미, 박순환, 박승수, 박승호, 박아름,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영희, 박우진, 박유림, 박윤미, 박윤성, 박윤숙,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은진, 박이수, 박이은희, 박인기, 박재문, 박재민, 박정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정훈, 박종현,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준숙, 박준하, 박준호,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오, 박지은, 박지원, 박지원, 박지현, 박지현, 박지희, 박진, 박신영, 박진표, 박찬규, 박찬양, 박찬희, 박초롱, 박한샘,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혜남, 박혜하, 박효원, 박효진,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반수미, 반주영, 방영화, 방은계,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셋별, 배성신, 배수현, 배순희, 배우미, 배자하, 배진영, 배하늘, 배현진, 배화정, 백경흔, 백미록, 백서영, 백성길, 백세희, 백수미, 백윤서, 백은영, 백은애, 백지선, 백지연, 백현, 변순진, 변승현, 변유경, 변주희, 변지은, 변필진, 삼봉한의원, 상상파워 출판사, 서관림, 서다희, 서명숙,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보일, 서상환,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용완, 서원, 서윤정, 서인석, 서정민갑, 서정애, 서정표,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혜미, 서혜원, 서혜진, 서효원, 서휘를, 석아름, 선우준, 선용, 선재희, 성기원, 성연이, 성예랑, 성지수, 성현아, 성혜경, 소희성, 손경이, 손다혜, 손명구, 손미연, 손미정, 손상열, 손소희, 손슬기,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손지민, 손지용, 손차민, 손태서, 송다은, 송명희, 송상민, 송석진, 송승한, 송용원, 송유정, 송윤진, 송은숙, 송인경, 송지영, 송진아, 송차령, 송현민, 신경숙, 신경욱, 신경혜, 신고은, 신누리, 신다희, 신동현, 신명숙, 신민정, 신상호, 신성용, 신수아, 신영미, 신예슬, 신우람,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중훈,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나, 신한솔, 신현정, 신현주, 신혜림, 신혜미, 신혜숙, 신혜은, 신희원,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은희, 심조원, 심혜원, 심혜림, 심효희, 썬스테이지, 안경훈,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소진, 안현숙, 안위, 안유정, 안윤정, 안은혜, 안재훈, 안정규, 안지희, 안창화, 안철민, 안춘기, 안태희, 안형윤, 안희경, 양경아, 양동현, 양민희, 양선화, 양성욱, 양성은, 양수안나, 양유경, 양윤정, 양은혜, 양은희, 양이슬, 양정민, 양창아, 양혜석,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어진희, 엄은지, 엄현경, 엄희수, 여은경, 여은진, 여지윤, 여진아, 연대원, 오경민, 오경희, 오선근, 오성화,



오성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이, 오승준, 오연경, 오영일, 오윤하,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용윤경,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준희, 우효상, 원경주, 원민경,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원찬희, 위은지, 유경미, 유경빈, 유경희, 유다솜, 유민상, 유민수, 유법재, 유병준, 유보람, 유서연, 유선영, 유세정, 유수연, 유승규, 유승민, 유승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용석, 유인규, 유정수, 유정훈,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희영, 유현미, 유현숙, 유현아, 유영하, 유혜진, 유호정, 윤경진, 윤나래, 윤다정, 윤다희, 윤보라, 윤선우, 윤소미, 윤소정, 윤소영, 윤소진, 윤수연, 윤수진, 윤숙경, 윤승현, 윤아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호, 윤용호, 윤자영, 윤정선, 윤정원,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해준, 윤현아, 윤형선, 윤희영, 윤선화, 이강훈, 이건정, 이경숙, 이경진,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화, 이귀환, 이규리, 이규호, 이규화, 이기백, 이나연, 이나영, 이나일, 이남주, 이다운, 이다정, 이대현, 이대호, 이도경, 이도열, 이동규, 이동구, 이동영, 이동원, 이동은, 이명숙, 이명신, 이명영, 이명희, 이문주, 이미정, 이미영, 이미정, 이미화, 이민기, 이민기, 이민아, 이병철,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은, 이상재,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희, 이선영, 이선혜, 이선호, 이선희, 이설화, 이성은, 이성인, 이성주, 이세나, 이세린, 이세영, 이소리, 이소림, 이소영, 이소은, 이소희, 이수안,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애, 이순화, 이순규, 이순숙, 이송용, 이송은, 이송준, 이송진, 이송훈, 이애리, 이여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지, 이연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완택, 이요단, 이용준, 이용택, 이원형, 이원홍,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심, 이은애, 이은정, 프토티션, 이은지, 이은호, 이은화, 이재원, 이재원, 이재호,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연, 이종은, 이종희, 이주영, 이주혜, 이주희,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별, 이준현, 이준형,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아,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인, 이지행, 이지혜, 이진솔, 이진우, 이진욱, 이진희, 이찰솔, 이창수, 이창희, 이채영, 이충애, 이하연, 이하영, 이하은,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하, 이현화, 이혜경, 이혜경, 이혜인, 이혜정,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화진, 이효린, 이희동, 이희실, 이희수, 이희승, 이희진, 이희화, 임근호, 임경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서영, 임설아, 임성윤, 임소정, 임소희, 임여경, 임예은, 임오주, 임유영, 임은규, 임은재, 임재택, 임정수, 임정욱, 임지수, 임지연, 임지영, 임지현, 임천용, 임청, 임하나, 임혜경, 임효진, 임홍실, 임희수, 임희운, 장다혜, 장도희, 장미정, 장선주, 장성연, 장성희, 장수경, 장수진, 장여경, 장연경,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재, 장정윤, 장정희, 장주영, 장지수, 장하나, 장혜란, 장혜린,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병욱, 전서래, 전소연, 전소영, 전수인,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은재, 전재혁, 전정욱,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혜진, 전화정,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경직, 정광, 정광철, 정교화, 정기영, 정기원, 정나리, 정다솔, 정대근, 정대연, 정탁기, 정동연, 정두리, 정문영, 정미경, 정미사, 정민성, 정민이, 정민희,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선영, 정소린, 정수연, 정순철, 정슬아, 정여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예, 정예슬, 정옥실, 정유린, 정유빈, 정윤정, 정은령, 정은아, 정은희, 정인호, 정재우, 정재하(이은),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운, 정지은, 정지현,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욱, 정진화, 정초윤, 정현, 정현우, 정혜윤, 정혜훈, 정효정, 정희수, 제하나, 조경오, 조계삼, 조규선,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서연, 조선우, 조선주, 조성은,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순영, 조승주, 조연주, 조영백, 조영선, 조영선, 조영주,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윤서, 조은샘, 조은숙, 조은을, 조은정, 조은희, 조인경, 조인석, 조인섭, 조인욱, 조일래, 조계연,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혜연, 조혜인, 조혜정, 조훈재, 존콘, 주광용, 주맘기공소, 주소현, 주석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영,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현, 진새록, 차민호, 차선주, 차성안, 차영선, 차현수, 차현영, 채유리, 채유리,

채은혜, 채현숙, 채훈병, 천정아, 천호승, 최강백, 최진호, 최경식, 최근우, 최금래, 최기영, 최다운, 최대연, 최동진, 최동석, 최동인, 최란, 최문영, 최미경, 최미림, 최미숙, 최미현, 최민서, 최민아, 최민욱, 최민정, 최병호,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서영, 최서운,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성희, 최세진, 최소영, 최수연, 최숙희, 최아림, 최여정, 최연우, 최영애, 최영주, 최예스란, 최옥경, 최원일, 최유리, 최유정,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정, 최익진, 최재용, 최정은, 최종린, 최지원,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찬양, 최태순, 최하나, 최현경, 최현숙, 최현정, 최형욱, 최혜란, 최혜린, 최혜영, 최효선, 최희범, 최희중, 최희진,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표주성, 표하늘, 표혜림, 하다영, 하류, 하승수, 하승표, 하연수, 하유림, 하은주, 하종석, 하주신, 하주현, 하지는, 하희정, 한기모, 한만천,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소망, 한수경, 한승진, 한승효, 한승희, 한신복,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유림, 한윤미, 한윤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민, 한지연, 한진영, 한재운, 한해령, 한희정, 함경진, 함아름, 허민숙, 허선형, 허성준,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재영, 허태균, 허혜진,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은미,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찬숙, 황미선, 황서연, 황선유, 황성기, 황성욱, 황성진, 황승원, 황승희, 황승경, 황예나, 황인솔, 황정진, 황진선, 황혜림, 황효진, 황휘, aaami, LEE JO HYANG, ooopiuu, ssy (이상 1487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명덕,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엘, 김지은, 김효선, 공지백토리,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인필, 박중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오주현, 원미진, 유정화,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영, 이우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정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린, 정명중, 조인석, 조일래, 존타클립,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이상 65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린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소영, 강은재, 고병진, 고화정, 곽선하, 금보경, 김광현, 김도희, 김동준, 김미우, 김미진, 김민성, 김석희, 김소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원오, 김유숙, 김유정, 김윤혜, 김임황, 김주연, 김지국,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해나, 김현지, 김혜연, 김혜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영미, 노유민, 류수민, 류종현, 목소희, 문숙영, 민슬기, 박기원, 박미나, 박미정, 박상희, 박세중, 박아름, 박우영, 박인필, 박정욱, 박준숙, 박현희, 박혜민, 배용준, 배정원, 백성준, 서범원, 서영민, 서해인, 송민성, 송지영, 송희연, 신경혜, 신영미, 신용범, 심연희, 심진실, 심현실, 안분순, 안소연, 안효선,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양혜연, 오경은, 오두환, 오선호, 오연서,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유선욱, 유예리, 유용석, 유진영, 유희정, 이경선, 이경아, 이다운, 이도행, 이도희, 이명희, 이상연, 이상아, 이수정, 이어진, 이영지, 이옥영, 이윤석, 이은미, 이은정, 이정숙, 이정화, 이종국, 이주실, 이준용, 이지영, 이지혜, 이찬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혜진, 임나영, 임명순, 임유영,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임지선, 강정춘, 장다혜, 장명환, 장주영,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승기, 전해영, 정고은, 정다린, 정민석, 정선희, 정순희, 정은경, 정정희,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조민정,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종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보영, 진수희, 최강현, 최세은, 최수연, 최영주, 최유리, 최윤미, 최정림, 최정인, 최희진, 추연정, 표아림,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아마자카마작(주), 한영규, 한예림, 한진희, 허민숙, 허복옥, 허정연, 허재량, 허지선, 홍난영, 홍상희, 홍윤기, 황동하, 황은순 (이상 182명)

▶반성폭력 연구 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는 울림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김경주, 김경희, 김계진, 김민우, 김민정, 김순원, 김윤영, 나성은, 남병희, 남승현, 마정윤, 박대진, 박성준, 박종웅, 박주현, 박준숙, 배상영, 백경원, 서혜진, 송유진, 오세훈, 오진이, 윤은정, 이강화, 이진선, 장주리, 장주희, 전유나, 조현규, 진수희, 한예림, 홍아현, 황선미 (이상 33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일상직물, KaiHin Yoo, 강나래, 강다겸, 강소라, 고보미, 고승우, 고유미, 고재영, 구자경, 권다혜, 김가희, 김경년, 김보원, 김봉후, 김선학, 김세희, 김승호, 김용수, 김이현, 김준수, 김지현, 김찬민, 나혜림, 남지현, 남진실, 남하람, 모영철, 문기현, 문찬미, 박규리, 박선은, 박성민, 박종현, 백미순, 서예원, 서은영, 선종현, 성도윤, 성린, 송현영, 수키도키, 신경진, 신은혜, 양은석, 양호정, 에브리마인드, 오선화, 오승익, 우창민, 원자영, 유연수, 윤 찬, 윤명식, 윤혜미, 이가연, 이나은, 이병화, 이병형, 이서희, 이수연, 이슬기, 이승주, 이영지, 이주아, 이지수, 이지영, 이진희, 이현성, 이현수, 이형수, 이혜림, 이희진, 임규원, 임수연, 전미소, 전예진, 정선재, 조샘이, 조일래, 조임춘, 조현아, 주기철, 주식회사위밋업스포츠, 진규원, 최기하나, 최원휘, 최재영, 포커스교회, 하유리, 하종성, 한선영, 한승철, 한윤정, 허성원, 허윤민, 홍기호, 황윤정 (이상 98명)

▶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에 함께해주신 특별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남식, 강미연, 강에은, 강우정, 강은희, 강제인, 강지수, 강지수, 강하니, 강현숙, 강현정, 강혜란, 계영, 고미경, 고병진, 고병현, 고보민, 고임숙, 고재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상언, 광정은, 광진경, 구남희, 국제인, 권김현영, 권문영, 권수정, 권숙희, 권주희, 권희주, 글항아리, 기독교위드유센터, 기원, 김가영, 김경숙-용인, 김다래, 김다미, 김도미, 김도연, 김동균, 김동소, 김두나, 김들순, 김미량, 김미순, 김미영, 김미현, 김민문정,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보라, 김성자, 김세린, 김세희, 김수아, 김수잔, 김승열, 김신아, 김신희정, 김애라, 김양은, 김양지영, 김엘리, 김연우, 김연철, 김영서, 김영정, 김영희, 김예리, 김예린, 김우림, 김윤혜, 김은아, 김은주, 김은희, 김재희, 김정아, 김정은, 김경혜, 김주은, 김주원, 김주희, 김지수,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창연, 김태경, 김태욱, 김하나, 김하윤, 김혜영, 김현지, 김현아, 김형준, 김혜미, 김혜진, 김홍미리, 김효정, 김효진(여름), 나무, 나윤경, 남궁우연, 남성아, 노경란, 노규미, 노길룡, 노미선, 노민욱, 노승민, 노애경, 노주희, 노지은, 다이브, 다정, 류권우, 류다솔, 류덕재, 류채연, 마한열, 모리타 토모에, 목소희, 문경선, 문경은, 문숙영, 문은영, 문준희, 문지영, 미혜, 민윤경,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박경진, 박고은, 박광수, 박다솔, 박다위, 박대진, 박미정, 박민규, 박민선, 박봉정숙, 박부영, 박부진, 박상훈(선민), 박사우, 박서원, 박선영, 박송현, 박수진, 박신영, 박아름, 박우영, 박윤숙, 박은주, 박은희, 박주현, 박지현, 박지희, 박지희, 박진선, 박초롱, 박현이, 박혜민,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배민경, 배범호, 배복주, 백경훈, 백미숙, 백향숙, 법무법인 온세상, 보리,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아시아워민브릿지 두런두런, 서보익,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윤정, 서정희,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치현, 선우준, 성경, 소라미, 손경이, 손미정, 손유정, 송가운, 송요섭, 송은하, 송지혜, 송해나, 신상숙, 신신화, 신세은, 신소현, 신수경, 신유정, 신은재, 신지, 신혜선, 신홍음, 신선혜, 심희경, 아오리, 안선민, 안원숙, 안은혜, 양수안나, 양유경, 양윤란, 양지윤, 양현경(이산), 어효진, 엄지은,

에브리마인드, 여성환경연대, 연윤실, 오민진, 오승준, 오정아, 오정희, 오주연, 오주연, 오현주, 원민경, 원소유, 원의림, 위정은, 유승희, 유여원, 유지희, 윤강로, 윤다림, 윤석희(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선영, 윤재진, 윤정아, 윤정원, 윤지은, 윤혜인, 이갑숙, 이건명노선에, 이경환, 이나연, 이나영, 이단비, 이도경, 이동욱, 이래은,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보라, 이보라, 이보미, 이상화, 이상희, 이소민, 이소의, 이소희, 이슬, 이숙현, 이신율, 이어진, 이어경, 이영희, 이예진, 이원정, 이유민, 이유선, 이윤상, 이은미, 이은심, 이은주, 이은희, 이은희, 이재정, 이정선, 이정연, 이정화, 이주연, 이지연, 이지은, 이진희, 이하영, 이한별, 이향심, 이현숙(탁틴), 이현아, 이형찬, 이혜경, 이혜민, 이혜현, 이호연, 이효린, 인권운동사랑방, 임경진, 임민경(명경), 임민희, 임유영, 임재우, 임지숙, 임지홍, 임개미, 장기태, 장다혜, 장애여성공감, 장윤경, 재단법인한국여성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예봄, 전은수 변호사, 전현정, 정다운, 정다정, 정문모, 정미경, 정서하, 정소연, 정수경, 정신분석센터 판도, 정영음, 정우용, 정유성, 정은영, 정은희, 정정희, 정혜선, 제주여성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조무호, 조민정, 조선주, 조양희, 조윤희, 조은미, 조주은, 조혜련, 조혜인, 주수미, 주원, 진재연, 차소민, 차승미, 차혜령, 채상이, 채신아, 천정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최기하나, 최다경, 최명숙, 최보원, 최성화, 최수연, 최원진, 최주영, 최지나, 최현정, 추지현,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하성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남, 한미경, 한소예, 한희정, 함경진, 함혜경, 허복옥, 허요영, 허윤민, 허은주, 허계량, 허향희, 현지연(칼리), 홍경숙, 홍민아, 홍상희, 홍선미, 홍순기(이사), 황다은, 황에나, 황유나, 황은영, 황진이, 황해성, Ashcan Studio of Art, Heo Junseok,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한국여성민우회, (재)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주)시종기술경영, (주)유세이프,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이상 406명)

{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울림, 부설 센터 열림터는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회원 문의: 닥별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센터 열림터 회원 문의: 낙타 02-338-3562, yeolim94@sisters.or.kr

훈훈한 기부

- { 상담소 }**
- 장요석 님의 언제 먹어도 맛있는 파베기, 핫도그, 팔도넛 세 박스
 - 신도리코 님의 원기충전 비타500 한박스
 - 주현 님이 제주도에서 사온 구좌당근파이와 비질블랜딩 티
 - 이상희 님의 상큼 따뜻한 한라봉차 한박스와 젤리, 타르트 다과세트
 - 이미경 님의 물도 많고 달달한 복숭아 2.5kg 한 박스
 - 395빵집 님의 몸에도 지구에도 좋은 비건빵
 - 선민 님의 손맛이 담긴 직접 담근 청귤청과 토마토비질청,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탄산수
 - 천정환 님의 종류별로 다 담은 스콘 한박스
 - 미현 님의 고소한 호두과자 한박스
 - 김지은 님의 직접 구워 더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
 - 정혜선 변호사님의 윤기나는 사과 1박스
 - 이경환 님의 진한 단맛 꽃감 1박스
 - 조인섭 님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와인 20병
 - 리슨투미 님의 다채로운 열대과일이 담긴 과일바구니
 - 부산성폭력상담소 님의 축하와 응원을 가득 담은 30주년 기념떡 2박스
 - 선민 님의 급속 당 충전을 지원하는 마카롱 2박스
 - 이명숙 님의 명절 맛이 비타민 보충을 위한 꿀 1박스
 - 유량 님의 제주도 산지직송 감귤 2박스
 - 허은주 님의 아삭하고 달콤한 햇감 2박스
 - 감이 님의 제주도 한정상품 감귤파이 2박스
 - 여름 님의 맛있는 구움과자와 빵
 - 장슬기 님의 달고 맛있는 황금향 1박스
 - 이경아 님의 달콤짜릿 도넛 2박스
 - 혜영 님의 전지렌지에 돌려먹는 신기술 떡 1박스
 - 내담자 님의 깔끔한 2022 탁상달력과 고급 홍차 세트
 - 내담자 님의 정갈하고 맛있는 고급쿠키세트
 - 리퍼 님의 성폭력 피해회복을 그린 자전적 만화 <Ai Last> 5세트
 - 임경진 님의 활동가를 위한 귀여운 캐릭터 양말
 - 추지현 님의 시원새콤한 제주 감귤 2박스
 - 한국여성외전화 님의 2022년도 알차고 알뜰하게! 여성수첩 1박스

- { 열림터 }**
- 심심잡화점X옥혜숙 님의 매달 정성스레 고른 책 총 14권
 - 하나 님의 명절 분위기 물씬 풍기는 스텝 복합세트 1호

* 9/10~10/19 후원내역이 누락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다정한 응원, 언제나 고맙습니다!